따뜻한 겨울… 전남 농작물 생육 비상

평균온도 1.6~2℃ 높아… 대파 생산량 급증 가격 하락

마늘·배 등 생산량 감소 우려… 시설농가는 난방비 경감

올 겨울 전남지역에 큰 눈이 오지 않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대파 파동이 우려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난방비 부담에 울상을 지었던 시설농가들은 따뜻한 날씨에 난방비 걱정을 덜었다.

6일 전남도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 대파의 생산량이 급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한겨울에는 대파의 생육이 더딘데, 최근 기온이 상승해 대파가 풍년이 들어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병충해까지 발생하지 않아 진도지역에서만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어난 5만t이 생산될 전망이고 신안·영광 등지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겨울 대파 가격(㎏당)은 1400원~1740원 선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900~1170원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하락했다.

날씨 탓에 생산량이 증가한데다 지난해 수입물량도 6만t을 넘어서 자칫 겨울 대파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늘과 배 재배 농가들도 날씨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고흥 등지의 밭에서는 날씨가 따뜻해 마늘이 웃자라고 있고, 나주 배 재배 농가도 고온 현상이 설날 무렵까지 이어지면 개화시기가 앞당겨져 생산량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에 시설농가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겨울철 가장 큰 부담인 난방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시설하우스 한 동(300평 기준) 당 많게는 1000만원가량 난방비를 지급했지만 올 해는 절반 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되풀이됐던 저온피해도 눈에 띄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6161 농가 4447ha에서 냉해(冷害) 등 저온피해를 입었다. 배(1515ha), 매실(641ha), 단감(628ha), 유자(522ha), 참다래(439ha), 녹차(251ha) 등의 피해가 컸는데 올 해는 따뜻한 날씨 덕을 보고 있다.

특히 녹차는 잦은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올 겨울 따뜻한 날씨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평균 전남지역 온도는 3.7℃이며 최고 기온은 8.3℃까지 치솟았다. 이는 추웠던 지난해 겨울 평균 1.6℃보다 2℃가량 높은 기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 평균 기온이 3.9℃이기 때문에 올 겨울 날씨를 이상 고온으로 볼 순 없지만 지난해와 기온 차이가 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박정렬기자 kroh@kwangju.co.kr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추기경 되나

서울 염수정·제주 강우일 주교 후보 거론

교황청 이달 중순쯤 발표… 2월22일 서임식

김희중

염수정

강우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히지노) 대주교가 추기경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2월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인 추기경 서임식과 관련해 한국에서 새 추기경이 나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임식 한 달 전쯤에는 새 추기경 명단을 공개하는 교황청 관행을 감안하면 1월 중순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에 내는 납부금 규모가 세계 8~9위권인 점을 비롯해 한국 천주교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보면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후보로는 김희중 대주교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제주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대주교는 목포 출신으로 1975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지난 2010년 광주대교구 출신 사제로는 73년 만에 교구장에 착좌했다.

현재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재임 중 추기경이 됐다는 점에서 염 대주교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느냐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고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성향을 생각하면 사회문제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 온 김 대주교와 강 주교가 임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주교는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와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위원을 오랫동안 맡고 있으며, 강 주교도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경인기자 kki@·/연합뉴스

전남도 향응·뇌물 공직비위 몸살

건축단속 과정 노래방 접대 사무관 직위해제 등 셋 징계

전남도가 연초부터 공직 비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전남도는 "지난달 23일자로 단속 과정에 향응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A담당(사무관)을 직위 해제하는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께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실태 조사차 순천지역을 찾았다가 일부 건축사로부터 저녁 식사와 노래방, 숙박 비용 등의 향응 접대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뇌물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강도높은 단속과 무더기 징계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이 익명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남도는 2012년 말부터 한 달간 19개 시·군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을 전수조사해 36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토대로 건축사 61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6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가 고발 기준치인 300만원을 밑돌아 고발 대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2012년 시행된 영산강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 김모(50) 사무관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광역경제권 폐지 지역발전 정책 지자체가 주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골격으로 삼은 광역경제권은 폐지된다. 대신 시·도를 중심으로 협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을 정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는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정부 주도의 '5+2 광역경제권' 중심 사업이 시·도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 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시행 정책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한중FTA중단비대위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시켜라"

한중FTA중단비대위 회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리는 한중 FTA 9차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이 최대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루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광주·전남 지자체, 헌책 절도 '견책'·경운기 사망사고 '불문경고'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광주·전남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공무원 A(여·38)씨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헌책 160권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구청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징계는 6개월 승진제한·수당 불이익 등 일부 제한사항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다.

앞서 함평군도 지난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치어 경운기 운전자 등 3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공무원 B(43)씨에 대해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17일화순군 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4명의 사상 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평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B씨가 전남도지사상을 받은 바 있어 한 단계 징계를 낮춰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경고장은 해당 징계 대상자에게 발부하지만 인사상 기록이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경고로, 법제처는 지난 2012년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KTX호남선 개통대비 시민협의체 발족

광주시가 올해를 시민주권시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표 현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발족한다.

광주시는 6일 간부회의를 통해 "KTX 호남선 개통대비 전략수립을 위한 시민협의체 발족 등 10가지 현안과 관련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협의체가 구성되는 현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창조복지 ▲환경분야 ▲빛가람 혁신도시 기업유치지원 ▲마을행복사업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빛고을 시민 안전체험 ▲일자리 창출 ▲공사 발주 및 현장 점검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현안을 논의하는데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협의체는 매월 1~2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시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은 의견을 제시하고,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전화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최대 ~80%
금리는 낮게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2월10일 개강예정
학원생 모집
강의과목
사주 · 자미두수
육효 · 풍수지리
기초부터 고급까지!!
· 육십갑자 해설 · 자미두수대전
· 잘먹고 잘사는 사주학의 저자가 직접강의
각종생활상담
직업 · 사업 · 궁합 · 택일 · 개업
풍수지리 출장감정
상담 · 소개도 가능
구)나산 클래프
전대사거리
서림 초교
임동오거리
본원
화원 역학 연구원
광주 광역시 북구 임동 92-83
062)527-0755
010-5116-0766